

경찰청, '의붓딸 살해' 신고 논란 조사

경찰이 광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10대 여중생이 했던 성범죄 신고 대응이 미진했다는 의혹과 관련, 광주·전남 경찰에 대한 감찰 가능성은 염두에 둔 사실관계 조사에 나선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을 상대로 의붓아버지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진 A양이 생전에 했던 성범죄 신고와 그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청은 A양이 사건 발생 보름 전후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했었는데 지역 경찰에서 신속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사실 관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대응 과정을 분석하면서 신고 처리 절차나 처리에 문제가 있어 징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감찰을 진행,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A양은 지난달 28일 오후 2시57분께 광주 동구의 한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A양의 의붓아버지 김모(31)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친어머니 유모(39)씨를 살인공모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세간에서는 “미 복수의 청소년 성범죄 신고가 있었을 때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을 했더라면 잠시를 막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또 수사 대상이던 김씨가 보복할 마음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신고자인 A양에 대한 신변보호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 등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왔다.

A양은 숨지기 전인 지난달 9일과 12일 각각 친아버지, 의붓언니와 함께 전남 목포경찰서를 찾아 성범죄 피해사실을 호소했다고 한다.

지난 1월 김씨가 광주의 한 아산에서 성폭행 시도를 했으며, SNS로 두 차례 음란물을 보냈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 경찰은 A양을 같은 달 14일 조사했다.

당시 A양은 이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조사 다음날인 15일 친아버지와 혐의를 통해 이를 취소했다고 한다.

사건은 같은 달 16일 광주경찰청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목포 경찰은 17일에 피해 누취록·영상과 조사 기록을 광주경찰청에 등기

광주·전남 처리 과정 조사 ‘감찰 염두’

4월 9일·12일 성범죄 신고…관할 변경

대응 논란…현지 경찰 “절차따라 수사”

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에서 광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된 이유는 김씨 거주지와 사건 발생 지역 모두 광주였기 때문이라는 게 현지 경찰 측 설명이다.

이후 광주경찰청은 23일 해당 기록을 최초 검토했는데, A양의 친부가 연락을 받지 않아 24일 A양 조사 당시 동행했던 이동보호전문기관 직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

다.

그 뒤 A양은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김씨와 유씨가 사전에 A양이 성범죄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김씨가 성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범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유씨에게 신고 사실을 듣고 A양을 해지기로 공모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봉우 기자



2019 세계노동절 대회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광장에서 2019 세계노동절 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보수단체 5·18 항쟁 중심지서 집회 신고에 5월 단체 ‘강경 대응’

5·18 민주화운동 39주기 행사가 열리는 오는 18일 보수단체가 항쟁의 중심지였던 금남로에서 집회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5·18 단체 등은 “무시를 넘어 모욕을 주는 것이다”며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텐리아트 등 보수단체가 18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금남로 4가에서 집회를 하겠다며 신고했다.

단체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등을 요구하며 30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또 집회를 마친 뒤 ‘유공자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충장로 우체국과 광주천을 지나는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보수단체가 집회신고를 한 날은 5·18 39주기 기념식이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다.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는 기념식을 마친 뒤 39주기 추모행사를 옛 전남도청 일대에서 매년 열고 있다.

보수단체와 민주노총 등의 집회 장소 거리는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수단체의 집회를 둘러쌀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수단체의 집회를 보고 지나가는 시민들을 비롯해 진보적인 단체 회원들이 분노 할 수 있고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보수단체가 모이는 장소를 경찰력으로 둘러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춘식 유족회장은 “보수단체가 원하는 것은 물리적 충돌이 분명하기 때문에 충돌을 최대한 자제하겠지만 도를 넘을 경우 폭과하지 않겠다”며 “괴물집단이 따로 없다”고 비난했다.

최남규 기자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5·18 기념재단 이철우 이사장은 “보수단체가 올해 초부터 광주에서 집회를 열 때는 북인하고 지나쳤는데 이제는 안방까지 들어올려고 한다”며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제삿날인데 항쟁의 중심지까지 오는 것은 북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수단체의 18일 집회는 무시를 넘어서 모욕을 주는 것이다”며 “긴급 논의를 통해 집회를 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찾아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이야기했다.

정춘식 유족회장은 “보수단체가 원하는 것은 물리적 충돌이 분명하기 때문에 충돌을 최대한 자제하겠지만 도를 넘을 경우 폭과하지 않겠다”며 “괴물집단이 따로 없다”고 비난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보수단체가 모이는 장소를 경찰력으로 둘러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남규 기자

부산서 조현병 50대 자신 돌보던 친누나 살해

부산에서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50대가 친누나를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일 A(58)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께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친누나인 B(61)씨를 흥기로 질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복지관 직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5시 7분께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신고자는 상담을 위해 B씨에게 연락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고, A씨 집으로 찾아가보니 문이 잠긴 채 불이 껐어 있어 112에 신고한 것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집 베란다 창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안방에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하고 오후 5시 50분께 작은방 문고리를 잡고 베티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조금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복지관 직원이 누나에 대해 질문하자 A씨는 “자고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는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흥기가 발견됐고, 숨진 B씨의 몸에는 흥기로 인한 상처가 여러군데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체포된 A씨는 범행에 대해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해 부산시립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겸안의 소견 등을 토대로 지난달 27일께 B씨가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폐기물 불법처리 수십억원 쟁진 일당 검거

폐기물을 절반값에 처리해주겠다며 수거해 불법 투기해 수십억원을 쟁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3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액 A(42)씨 등 주범격 3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 화성, 강원 원주, 충북 청주, 경북 안동 등 전국 7개 지역 임야에 폐기물을 3만2000t을 무단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해당 지역 임야를 임차하거나 매입해 허가된 처리업체 대비 50%가격인 1㏊당 15만원을 받고 폐기물을 적치·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행진 부당 이득금은 48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하이장 관리책, 일선책, 운반책 등 역할을 분담하는 것은 물론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법 처리장에 대형 철제 기름막과 출입문, CCTV 등을 설치해 외부 시선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폐기물 처리장의 관리 등을 위해 대구 지역 조직폭력배 B(31)씨 등을 범행에 가입시킨 사실도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조직폭력배 등이 개입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 수사전담팀을 편성, 수사에 나선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외지인이 임야 등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임대하길 원하면 용도와 이용방법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 뒤에도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호송 중 수갑 풀고 도주한 30대 경주서 검거

경북 칠곡에서 특수폭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호송 도중수갑을 풀고 도주한 A(34)씨가 경주 홍성동의 한 원룸에서 도주 8시간만인 1일 오후 1시16분께 검거돼 칠곡경찰서로 압송 중이다.

칠곡경찰서는 A씨의 부인인 B(29·여)씨로부터 이날 오전 1시15분께 칠곡군 석적읍의 한 식당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사건이 발생한 식당은 B씨가 운영하는 곳이다.

A씨는 이날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던 부인의 친인 C(27)씨의 머리 등을 눈으로 때렸다.

이에 칠곡경찰서 석적지구대 이모(55) 경위 등 3명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특히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자구대에서 1차 조사를 마친 후 이날 오전 5시10분께 경찰서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놓쳤다.

수갑을 한 채 이송되었던 A씨는 차 안에서 한쪽 수갑을 풀고 경찰서 현관 옆 1.4m 높이의 담장을 넘은 뒤 오토바이를 이용해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위치를 추적했고 경주 홍성동에서 A씨를 붙잡았다.

뉴스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